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4호 【루계 제24467호】 주체103(2014)년 2월 23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난 1월 6일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면서 이곳에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건설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연장길이가 수백m에 달하는 1호부두와 2호부두, 상가대, 방파제, 호안공사를 진행하고 어로공합숙, 휴계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을 일떠세워야 하는 수산사업소건설은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방대한 건설대상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지난 2월 1일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20여일만에 총공사량중에서 제일 어려운 계선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추운 겨울조건에서도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한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수산사업소건설을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진척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중량부재들과 골조공사가 끝난 건물들을 보시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다고, 차디찬 파도와 싸우며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이것이 바로 단숨에의 정신력이 낳은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건설장을 바라보니 벌써부터 현대적으로 일떠선 수산사업소를 보는것만 같고 물고기떼가 기다리는것만 같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에 현대적인 수산사업소를 건설할것을 결심할 때 그 무엇이든 맡기면 못해낸 일이 없는 인민군대가 떠올랐다고, 그래서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긴다는것을 세상에 선포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건설장에서 창조되는 기적과 혁신을 놓고보아도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선에 서있으며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로동당력사는 변혁과 창조의 시간으로 흐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로 건설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사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조국과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할 건축물을 자기들이 맡아 건설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한다는 립장에서 수산사업소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로동당시대의 걸작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설계가 선행되여야 하는것처럼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시대를 주름잡는 룡마의 기수들답게 력사의 한페지를 남기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이 들썩이게, 부글부글 끓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건설이 끝난 즉시 어로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선장, 어로공모집과 그들을 만능어로공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금부터 잘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공사를 제기일에 훌륭히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완공의 자랑찬 보고를 드릴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항일유격대식사상사업방법을 창조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그날로부터 어느덧 40년이라는 력사의 년륜이 이 땅에 아로새겨졌다.

40년!

이 나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얼마나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행로만을 힘차게 걸어왔던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력사가 감회깊이 돌이켜지는 이 시각 우리는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당을 생기발랄하고 전투력있는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활동에서 사상사업이 노는 역할은 비할바없이 크다.

사상을 무기로 하여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인 당에 있어서 사상사업을 앞세워나가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사상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버리게 된다는것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된 비극적인 현실을 통하여 여실히 증명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당사상사업에서 선전선동사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천명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오기 위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사상사업을 화선식으로!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사상사업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되게 하여주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다.

사상사업에서의 화선식이란 당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당정책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항일유격대식이다.

생산에서도 학습에서도 생활에서도 항일유격대식을 주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도 이렇게 항일유격대식을 내세우시였고 다름아닌 여기에 당사상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다고 보시였다.

주체62(1973)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에서 당사상사업에 남아있는 낡은 틀을 철저히 마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커다란 감화력과 생활력을 가진 선전선동형식과 방법들이 많다고, 우리는 응당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당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항일유격대식으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을 생기발랄하고 기백넘치는 당,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하기에 주체63(1974)년 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엄숙히 선포하시면서 그처럼 뜨겁게 강조하신것 아니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수령님께서 현지지도를 하시다가 포전에서 동무 누구요 하고 물으시면 저는 군당사상비서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무엇하러 나왔소라고 물으시면 당정책을 해설하러 나왔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이것이 가장 리상적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선전선동사업방법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선전도 하고 선동도 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업하는 여기에 선전선동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다고 하시면서 군중속에 들어가 항일유격대식으로 선전선동사업을 벌려야 당이 생기발랄하고 활력있는 당으로 될수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것은 우리 당사상사업발전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불멸의 강령이 있었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되고 혁명의 개척기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당사상사업전반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 당사상사업은 항일유격대식으로 활기있게 진행되게 되였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밑에 모든 당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고 온 나라를 전례없는 혁명적열의로 들끓게 하였다.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늘 생산자대중속에서 사업하는 당일군들을 만나게 되시였다.

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정치사업을 벌리고있는 당일군들을 만나시였고 발머리를 찾으시였을 때에는 방송선전차에서 선동사업을 하고있는 당일군들을 만나시였으며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기대옆에서 로동자들과 어울려 일하는 당일군들을 만나시였다.

그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사업이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사업에서 일어나고있는 이 혁명적전환을 두고 주체64(1975)년 10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최근 우리 당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고,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를 이루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된것은 우리 당의 사상중시로선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과시로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밑에 당사상사업에서 이룩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재부이다.

1990년대 우리 조국과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는 참으로 준엄하였다.

이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사상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하시여 군대와 인민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며 반사회주의공세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던 시기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신분, 때로는 군인들을 찾으시고 자주적근위병이 되겠는가 아니면 노예가 되겠는가고 하시며 그들에게 총대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주시고 강계와 성강을 찾으시여서는 사회주의수호의 억센 기상을 안겨주시며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실천으로 깨우쳐주신분이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우리 인민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시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인민군대의 화선식정치사업방법이 온 사회에 일반화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이 나래치게 하고 우리 인민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주장하시고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이 땅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게 하였다.

우리 잠시 돌이켜보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사상사업의 세찬 불길속에 이 땅에 펼쳐진 현실들을.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평양하늘가를 우러러 《장군님! 뵙고싶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수령의 노래를 부르며 생을 아름답게 장식한 영웅전사들, 동지들을 위하여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은 김광철영웅,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길영조영웅, 타래치는 화염속에서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나무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무재봉의 영웅전사들…

가장 활력있고 힘있는 선전선동으로 이 땅에 빛나는 승리만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의 철저한 구현!

바로 여기에는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선전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게 함으로써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가 담겨져있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 당사업이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이 집중될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최후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전 광 남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이 22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혁명의 대전당, 태양의 궁전을 찾은 그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중시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안아오시고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정치군사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돌이켜보며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 진군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데 대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마음속으로 아뢰이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사상전, 선전선동의 집중포화로 천만군민의 앙양된 정신력을 계속 고조시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신이 창조되게 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 분구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명부 공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구, 분구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명부를 공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준하여 작성된 선거자명부에는 해당 지역내에 거주하고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되였다.

선거자들은 공시된 명부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2월의 리명수가 전하는 이야기

2월의 리명수는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백두산청석이 쩡쩡 얼어터진다는 북방의 사나운 겨울에도 흰김을 뿜어올리는 리명수폭포, 줄줄이 드리운 고드름이 해빛에 반사되는 눈부신 설경속에 동화세계에 나오는듯 한 오붓한 마을이 있다.

동구밖에 세워진 혁명사적비를 중심으로 길량쪽을 따라 사적건물들과 함께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이마를 맞대고 줄지어 서있는 여기가 바로 삼지연군 리명수로동자구 물동마을이다.

주체87(1998)년 1월 어느날 백두산지구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명수물동을 찾으시였다.

수십년전 백두산지구에로의 첫 답사길을 열어가시던 나날 리명수폭포의 소연한 물소리를 들으시며 항일의 나날을 그려보시던 그날이 떠오르시는지 그이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 없으시였다.

이윽하여 리명수의 물온도며 자그마한 발전소의 발전능력을 료해하시며 물동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여기에 있던 집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고 물으시였다. 도의 책임일군은 놀랐다.

사실 전후에 이곳에는 림산마을이 있었는데 사업소가 새림지로 옮겨가면서 마을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 오래전에 있었던 자그마한 마을까지 기억하시다니?!)

그 일군이 살림집들을 다른 곳에 옮기였다고 보고올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시였을 때는 여기가 마을이였다고, 사적지가 있는 곳에는 집이 있어야 한다고, 인민들이 있는 곳에 사적지를 건설해야지 사람이 없는 곳에 무슨 의의가 있는가고 타일러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사적지가 인민들속에 있으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도의 책임일군에게 시선을 돌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집이 있으면 인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사적지를 더 잘 관리하게 된다고, 동무가 바로잡아야겠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사적지는 인민들속에!

참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뜨겁게 체현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말씀이였다.

그로부터 몇해후 어느 초겨울 량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명수물동마을을 두시고 다시금 뜻깊은 추억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십년전 림산사업소 지배인의 집에서 하루밤 머무르시면서 감자맛을 보신 일을 회고하시면서 인상이 깊었다고, 1998년도에 갔을 때 그 집을 찾아보자고 하였지만 주변을 공원화하여 찾을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리하여 리명수물동가에는 1950년대의 림산마을이 다시 생겨났다.

통마루의 생김새와 창문모양에 이르기까지 원상그대로이면서 방안은 현대의 맛이 나게 잘 꾸려진 집들이 아담하게 일떠섰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은정속에 자취를 감추었던 림산마을이 다시 생겨난 이 전설같은 이야기는 2월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글 특파기자 전철주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치시여

고귀한 지침

주체77(1988)년 7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크다고 하여 위대한 사상이 나오는것이 아니라고, 비록 나라는 작아도 수령과 지도자가 위대하면 그 나라의 지도사상도 위대하다고, 이것은 진리이며 법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로 높뛰였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온 세계에 빛을 뿌린다는 민족적자부심이 그의 가슴에 한껏 넘쳐흘렀다.

세찬 흥분으로 가슴들먹이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사상은 세계를 무기없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고,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이야말로 세계를 밝히는 홰불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이며 력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음성으로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된다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는 사상의 강국이고 정치대국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뜻깊은 말씀은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의 지위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령의 높으신 권위와 사상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준 고귀한 지침이였다.

승리의 원천

어느해 봄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속에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전투임무수행정형과 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교양실에도 들리시였다.

중대교양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어떻게 하고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관심하시였다.

군인들의 사상교양에 리용되고있는 자료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탁에 놓인 탁상교양자료에 시선을 돌리시며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군인교양에 좋은 자료들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하나의 탁상교양자료를 보시면서도 그토록 기뻐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부대지휘관들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지휘관들에게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대가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부대지휘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굳건히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가 사상을 틀어쥐면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였다.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며

주체97(2008)년 4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총진군길에서 사상의 위력을 총폭발시켜나갈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이 제시한 강성국가건설의 높은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사상중시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상전선에서부터 총진격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날수 있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진 말씀이였다.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사상의 위력으로 적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무엇보다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국가는 인민대중의 사상의 힘, 불굴의 정신력에 의하여 일떠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며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곧 사상의 총진군이라고 하시면서 혁명과 건설의 그 어느 분야에서나 사람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 불타는 맹세가 용솟음쳤다.

본사기자 림정호

박봉주총리

함흥시안의 중요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기업소들에서 주체비료와 주체비날론, 대상설비생산정형을 료해하고 협의회들을 진행하였다.

협의회들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같은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현지지도자욱이 깃들어있는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또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생산을 늘이며 련관단위들에서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한편 총리는 흥상요업공장생산실태를 료해하였다.

총리는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고 가진 협의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 벌어지고있는데 맞게 건설에 필요한 벽돌을 원만히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대동강건재공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고있다.

—주체사상탑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계속 박차를!

농사차비에 모든 력량을 집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흙깔이전투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재령벌과 연백벌을 비롯한 도의 그 어디서나 흙깔이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2월 22일현재 도적으로 2만6천여정보의 논밭에 흙깔이를 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도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흙깔이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흙깔이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재령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흙깔이전투의 앞장에 섰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개바닥흙원천이 많은 래림, 강교, 북지, 김제원협동농장들에 힘을 집중하여 흙깔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땅이 얼기 전에 미리 물푸기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개바닥을 까내고 뜨락또르,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적극 리용하여 매일 흙깔이실적을 올리고있다. 흙깔이전투에서는 래림협동농장, 강교협동농장, 북지협동농장이 앞서나가고있다.

장국, 양계협동농장을 비롯한 산간지대 협동농장들에서는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토양분석자료를 놓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흙깔이를 하고있다. 군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농업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여러날동안 래림협동농장에 달려나가 흙깔이전투를 벌린데 이어 개바닥흙을 파서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도 보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흙깔이전투에 떨쳐나선 오국, 마명, 룡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안악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력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늪과 수로, 양어장바닥의 흙을 파서 포전들에 내고있다. 굴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흙깔이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개바닥흙을 파내여 포전에 실어내면서 매일 흙깔이실적을 올리고있다. 배천, 연안, 청단군을 비롯한 연백벌의 협동농장들과 도의 다른 군들에서도 흙깔이목표를 높이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성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흙깔이전투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농촌당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을 들끓는 현장들에 집중시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임으로써 흙깔이전투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농사차비에 한결같이 떨쳐나 매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지난해농사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올해농사작전을 바로하고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특히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에서는 거름생산과 니탄캐기, 흙보산비료생산, 흙깔이, 카바이드재실어나르기 등을 통이 크게 전개하는것과 함께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부속품생산과 수리, 박막생산에도 힘을 넣고있다.

함흥시안의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수만의 도시거름을 생산하여 농촌에 실어다주었다.

도에서는 카바이드재를 화물렬차와 화물자동차로 농촌에 실어보내는 사업을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 함흥철도국, 정평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서로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석탄과 석회석을 실으러 가는 빈 화차들에 카바이드재를 실어 농촌에 보내주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인민위원회, 도인민보안국, 도검찰소, 도체신관리국, 도고려약생산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함흥모방직공장, 흥남제약공장, 흥남전극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깐지게 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카바이드재수송계획을 120%, 최고 160%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함흥시와 단천시, 신포시, 북청군과 함주군, 홍원군, 락원군, 영광군, 고원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거름과 흙보산비료생산, 니탄캐기, 흙깔이, 뜨락또르와 농기계수리 등 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곳 시, 군들에서는 청년들을 발동하여 니탄캐기를 통이 크게 하고 거름생산과 흙보산비료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으며 농기계작업소들에서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수리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전력생산성과 확대

부전강발전소에서

부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전력생산에서 련일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1월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전력생산에서 계속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새해벽두부터 분초를 쪼개가며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겨가며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해벽두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전력공업성의 지도방조밑에 발전소초급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전력생산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이와 함께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모든 발전설비들을 만가동시킴으로써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전력증산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을 찾고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부전강발전소의 1호, 2호, 3호, 5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여러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은 순회점검을 책임적으로 하여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말에 발전기들에 대한 보수를 빈틈없이 끝내고 올해전투를 시작한 첫날부터 합리적인 운전으로 그 능력을 최대한 높여 매일 수천kW의 전력부하를 더 거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3호발전소에서는 물몰이를 합리적으로 하여 저수지에 많은 물을 잡아놓은데 맞게 수문보수관리를 잘하여 요즘 매일 계획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하고있다.

4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매 발전기들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전하여 같은 물을 가지고도 매일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자강도안의 축산기지들에서

자강도의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축산물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강계돼지공장, 흥주닭공장을 비롯한 자강도의 현대적인 축산기지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올해의 첫달 닭알, 고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축산물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6월 강계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떠세워주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큰 은을 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의 일군들은 올해 축산물생산에 요구되는 먹이, 단백먹이를 전량 확보해놓은데 토대하여 닭알, 고기생산을 훨씬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은을 내여 도에서는 강계시 주민세대들과 로동자들에게 첫달 닭알, 고기공급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흥주닭공장에서 닭알, 닭고기생산이 계속 높아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창고들에 쌓아놓은 먹이, 단백먹이보관대책을 실속있게 세우면서 닭알, 닭고기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비육, 알낳이직장들에서 사양공들은 먹이주기와 물주기, 온습도보장을 비롯한 사양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요즘 매일 닭알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알낳이후보닭마리수와 닭알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비육닭들의 증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강계돼지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올해 첫달에 많은 량의 고기를 생산하여 강계시의 상업망에 보내준 자랑을 안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가 차례지도록 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먹이가공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분쇄기, 혼합기 등 현대적인 먹이가공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다루면서 매일 질좋은 배합먹이를 생산하고있다. 종축작업반의 사양공들은 온도보장과 공기갈이, 먹이주기, 물주기 등 어미돼지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1월 한달동안에만도 많은 새끼돼지를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육성작업반의 사양공들도 젖을 뗀 새끼돼지들의 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육성률과 증체률을 높이고있다.

비육작업반의 사양공들은 비육돼지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마리당 증체률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의방역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일령별, 계절별예방접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강계시교외에 있는 닭공장에서도 닭알, 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도안의 로동계급에게 매월 많은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면서 강계닭내포국집에 원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강계오리공장의 로동자들도 올해 공장앞에 맡겨진 고기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종자오리, 비육오리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림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림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림업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힘차게 떨쳐나선 량강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1월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다. 2월에 들어와서도 관리국아래 각지 림산사업소들에서는 많은 동발나무와 침목, 건설용통나무를 생산하여 철도역들에 집중수송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림업관리국에서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풍서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첫 전투에서부터 신심드높이 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통나무원천이 풍부한 림지들을 타고앉은 사업소의 모든 작업소생산자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산판지형을 잘 리용하여 통쏘이와 같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1월계획을 남먼저 끝낸 기세로 통나무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연암갱목생산사업소, 갑산림산사업소의 자동차운전사들은 대용연료를 적극 받아들여 수송기재의 실동률을 높임으로써 사업소적인 월계획수행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백암갱목생산사업소의 로동자들은 경사가 급하고 불리한 산판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통나무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백자, 유평림산사업소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도림업관리국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1.4분기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힘차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 *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강원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동발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이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의 생산의욕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세포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나무베기를 적극 밀고나가면서 운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륜전기재들에 대용연료를 적극 받아들이고 쇠바줄을 비롯한 자재들을 예견성있게 확보하여 베여낸 통나무들을 제때에 끌어내리고있다.

천내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로력과 설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매일 맡겨진 동발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통천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통나무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동발나무생산을 부쩍 늘이고있다.

도안의 다른 림산사업소들에서도 석탄공업부문에 더 많은 동발나무를 생산보장할 열의를 안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탄광들에 더 많은 동발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희천갱목생산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대중운동에서 기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창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온 북창은하피복공장의 연혁사를 더듬어볼 때 주목되는 점이 있다.

성과의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당조직에서 행정일군들이 기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떠밀어준데 있다.

북창은하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나날의 투쟁이야기를 놓고 우리는 대중운동에서 행정책임일군의 기수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조건은 령, 목표는 백

10년전까지만 해도 북창은하피복공장의 실태는 시대의 요구와는 너무도 먼거리에 있었다.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건물들, 해마다 미달된 생산계획…

게다가 일부 종업원들은 공장에 애착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실태는 새로 임명되여온 지배인 김광수동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어느 한 협의회에서 그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장이 비약할수 있는 방도는 오직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행정일군들의 관점에 있습니다.》

그때 일군들의 생각은 하나같지 않았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제기되였다.

—속담에 이불깃을 보고 발을 펴랬는데 령이나 다름없는 공장의 조건에서 과연 승산있겠는가.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중운동을 적극 벌릴수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지배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에서나 신심이 중요하다.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천리도 지척으로 보이지만 신심이 없으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로 보이는 법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어려운 조건을 뚫고나가자.

지배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해나선것은 당조직이였다.

당조직에서는 지배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면서 행정책임일군이 대중운동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기로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 신심이 부족하다는것은 결국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없기때문이라고 본 지배인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천을 통해 깨닫게 하기로 하였다.

바로 여기서 지배인의 기수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제품생산에서 중요한 수예설비를 공장자체의 힘으로 살려내던 때에 있은 일이다.

수예설비가 없어 공장에서는 많은 애를 먹고있었다. 제품생산의 선행공정인 수예작업을 먼곳에 있는 다른 단위에서 진행하다나니 많은 시간과 자재를 소비하고있었다. 수예작업을 제때에 따라세우지 못하여 전반적인 생산이 영향을 받고있었다.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지배인은 공장자체의 힘으로 수예설비를 갖추어놓기로 하였다.

어느 한 단위에서 고장으로 쓰지 못하고있던 수예설비를 가져다 수리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워낙 낡고 심하게 고장난 설비여서 품이 여간 들지 않았다. 하기에 공장의 일부 기술자들은 손을 들고 나앉기까지 하였다.

그때 지배인의 목소리는 얼마나 절절히 울렸던가.

《수예설비를 살려내는 문제는 결코 설비 하나를 살려내는가 살려내지 못하는가 하는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닙니다. 공장이 살아나가자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반영한것이 아닙니까. 이 길밖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배인은 그날부터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지배인의 기수적인 역할은 기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분발해나섰다. 서로의 지혜가 합쳐지니 좋은 안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렇게 되여 공장의 기술자들은 수예설비를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첨단기술로 장비된 설비로 현대화할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쪼아박았다.

지배인은 그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그들은 수예설비가 있는 공장들을 찾아가 설비의 기술적원리를 깊이 파악하면서 필요한 설계도면을 한장한장 그려나갔다. 때로는 설비를 살려내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구하기 위해 수백리길을 하루밤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유능한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군안에 있는 련합기업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설비의 시운전에서 실패한적이 그 몇번인지 모른다. 그때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지배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미는 행정책임일군의 모습에서 그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이렇게 그들은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많은 사람들이 살려낼수 없다던 수예설비를 끝내 살려내고야말았다.

머리를 기웃거리던 일부 일군들도 점차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중운동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작도기와 같은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련이어 반영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콤퓨터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도 받아들여 생산조직과 지휘에서 신속성과 정확성도 보장하였다.

결국 공장은 높이 세운 기술혁명결의목표뿐아니라 모든 결의목표들을 점령하고 짧은 기간에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령이나 다름없었던 조건에서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

이들의 경험은 비록 조건이 불리한 단위라고 하여도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중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행정일군들이 기수적인 역할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단위를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족인가, 비약인가

대중의 앙양된 열의도 옳바른 지도밑에서만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려가던 과정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을 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쁨은 비할바없이 컸다.

그러한 때 지배인 김광수동무가 공장자체의 힘으로 5층짜리 생산건물을 6개월동안에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높이자는 안을 내놓았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공장에 이룩해놓은것이 과연 적단 말인가. 더구나 건설을 전문으로 해본 사람도 없고 녀성들이 대다수인 조건에서 어떻게 자체의 힘으로 다층건물을 일떠세운다는것인가. 그것도 6개월동안에…

이때에도 행정책임일군의 기수적인 역할은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물론 우리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과정에 거둔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거둔 성과는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피복분야에서 발전되였다고 하는 단위들과 다른 나라들의 실태는 물론 공장의 현대화가 얼마만 한 높이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성과에서 더 큰 성과에로 비약합시다.》

지배인의 호소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종업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5층짜리 생산건물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를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되여 5층짜리 생산건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이때에도 제일 어려운 모퉁이는 지배인이 맡아나섰다.

김광수동무는 생산지휘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목재, 철근을 비롯한 자재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청년동맹원들로 돌격대가 조직되고 최석환동무가 돌격대대장으로 임명되였다. 공장은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얼마 안되는 남성로력과 대부분의 녀성들로 조직된 돌격대는 장마철에도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기초파기와 벽체쌓기를 비롯한 모든 작업을 일정대로 밀고나갔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인 리상준, 채명식동무들이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공사 전기간 현장에서, 출장지에서 공사지휘와 자재보장을 위해 발휘한 지배인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다.

공장종업원들은 불같은 투쟁속에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5층짜리 현대적인 생산건물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이야기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비약의 큰걸음을 어떻게 새겨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성과에서 더 큰 성과에로!

공장에서는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련속갱신보충하면서 줄기찬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기사장 리정호, 설비부원 리기영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경영업무활동의 콤퓨터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여러 생산공정들의 현대화수준을 훨씬 끌어올리였다. 대중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공장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행정책임일군들의 기수적인 역할을 높일 때 단위사업에서는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는것을 현실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언제나 그날에 살리라!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마두산혁명전적지 강사 박명순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항일의 녀투사들이 입었던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이런듯 그는 보위색제복에 혁띠를 산듯이 조여매고 붉은별 빛나는 모자를 쓰고있었다.

나이는 서른두살, 대학을 나온 후 교단에 섰다가 강사로 일한지 6년이 되여온다고 하였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녀강사를 보는 순간 원수님을 모시고 감격과 환희에 넘쳐 전적지길을 걷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 *

꿈결에도 소원해온 시각이였건만 그날이 언제 올지 어찌 알랴 했던 박명순동무여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서도 내내 꿈만 같아 손등을 꼬집어보기까지 했다.

왜 그렇지 않았으랴. 츠렁바위를 넘고 서덜을 지나며 하루에도 몇번씩 전적지를 돌면서 강의를 하고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눈이 내리면 눈발을 헤치며 년년이 이어온 나날이 그처럼 부지불식간에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잇닿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그였다.

그런데 얼마나 뜻밖인가.

마두산에서는 대한추위에 나무도 갈라터진다고 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날은 대한이 지난지 겨우 이틀째 되는 날이였다. 그런데 날씨는 대소한이 울고갈 정도였다. 밖에 나가면 입김이 한발이나 되게 나갔고 손발은 삽시에 얼어들었다. 바로 이런 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에 오시리라고 박명순동무는 상상조차 못하였다. 그랬던지라 교양실에 앉아 구호문헌영구보존에 쓰이는 유리판들을 정비하다가 곁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소장 장영명동무가 웬 승용차소리인가고 하며 창밖을 내다보고 이렇게 다급히 웨쳤을 때 그 말을 선뜻 믿지 않았다.

《원수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시였소!》

박명순동무가 의아해 쳐다보자 장영명동무는 그의 팔을 세차게 잡아흔들었다. 《정말이요!》 하며 문가로 막 달려갔다.

박명순동무는 그제서야 화닥닥 뛰쳐일어났다. 창밖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널뛰듯 하였다. 허나 도무지 생시같지 않아 눈을 비비고 또 비비였다.

(오시였구나, 정말 오시였구나, 우리 원수님께서!!)

그는 《원수님!—》 하고 목메여부르며 뛰쳐나갔다.

…

승용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활달하신 걸음으로 벌써 구호문헌보존교양실에 들어서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태양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녀강사를 자애롭게 바라보시였다. 박명순동무는 격정에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는 흥분에 휩싸인채 황황히 인사말씀을 드리였다. 당황했던 나머지 원수님을 뵈옵게 되면 꼭 드리리라 옥에서 옥을 고르듯 골라두었던 인사말은 다 잊고 그저 두서없이 인사드리고는 송구스러움에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시고 환히 웃으시면서 강사동무, 수고가 많구만라고 하시며 어깨를 다독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 뵈올 날을 기다리던 생각에 그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는 해마다 수만명 답사자들을 맞아 전적지의 수많은 나무와 바위들에 새겨진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구호들과 혁명유적, 유물들에 대한 해설강의를 진행하군 하였다.

10리 로정을 오르내리며 답사자들앞에서 강의를 하는 순간에조차 불쑥불쑥 갈마들던 불같은 그리움—언제면 우리 전적지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실가? 나도 언제면 원수님을 뵈올수 있을가? …

언제인가는 전적지를 찾은 한 소년에게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대표로 평양에 가서 아버지원수님을 뵈옵고 원수님의 손도 잡아보았다는 말을 듣고는 《어디 네 손을 한번 잡아보자꾸나.》 하며 오래도록 아이의 작은 손을 품에 꼭 그러안았던 녀강사,

낮과 밤을 이어 간절하기만 한 그 생각에 돌에 걸채여 넘어진적도 한두번 아니였다.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도 잃고 피눈물을 뿌리면서 걷던 전적지의 산협길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면서 걷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몇해,

매일같이 답사로정을 반복하며 하루에도 수십리, 련이은 강의와 행군에 목이 쉬고 지쳤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겨냈던가. 삼복의 무더위, 엄동의 강추위가 견디기 어려웠을 때에도 무엇으로 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을수 있었던가. …

경애하는 원수님을 마침내 만나뵈옵게 된 그는 다 말씀올리고싶었다. 다름아닌 원수님께서 날마다 제 맘속에 오시여 눈길도 비속도 함께 걸으시였다고, 찬물로 졸음을 쫓으며 강의안을 쓰던 그 밤들에도 날이 밝도록 곁에서 보살펴주시였고 퍼붓는 장마비속에 산사태를 맞받아 구호문헌을 지켜내던 그 새벽에도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였다고!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 알고계실것만 같았다. 전적지에 강사로 금방 배치되여와 구호나무들을 돌아보려 산속깊이 들어갔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 그만 길을 잃고 산판을 헤매였던 일이며 답사자들이 떠나가면 산중이 금시 호젓해져 저도 모르게 외로움에 젖던 일이며…

험산길에 발이 심하게 부르터 걸을수 없고 사지가 쑤셔 자리에 누운채 안타까움에 울 때 집에 찾아온 고모가 나약해선 못쓴다, 사람이 강해지자면 눈물을 깨물고 일어설줄 알아야 해, 일을 잘해 원수님께서 오시거든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한 말도 그이께서는 들으신것만 같았다.

그때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섰던가. 원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는가 생각하며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다시 강의길에 나서지 않았던가.

하기에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를 두고 걱정의 말씀을 하시였을 때 가슴속진심을 그처럼 솔직히 아뢰이였던것이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구호문헌보존교양실에 들리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외에 있는 구호문헌들을 보시였다. 박명순동무는 구호문헌들에 대하여 해설해드리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첫 구호나무앞에 이르시자 박명순동무는 해설을 해드리려고 한걸음 나섰다. 그때였다. 원수님께서 문득 그를 돌아보시더니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걱정어린 어조로 오늘 날씨가 몹시 찬데 왜 솜옷을 입고 오지 않았는가고, 빨리 가서 솜옷을 입고 오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박명순동무는 목이 꽉 메여올랐다. 그는 치솟는 격정을 누르면서 원수님을 뵈옵는 순간에 너무 따스해 얼었던 몸이 다 녹아 이젠 춥지 않습니다라고 심정을 그대로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래도 날씨가 추운데 앞으로는 꼭 솜옷을 입고 강의를 하라고 재차 이르시였다.

박명순동무는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다심한 정 넘치는 그 말씀이 친부모의 따뜻한 손길로 가슴에 끝없이 파고들었다.

한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열살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고모의 슬하에서 자란 그였다. 일찍 부모를 잃은 조카가 그늘에 치일세라 고모가 원심을 쓰고 동네어른들과 학교선생님들, 동무들도 인정을 기울였지만 때없이 부모정이 그립던 소녀가 어제날의 그였다. 아버지, 어머니와 살던 강남군에서 마두산 린근 마을의 고모네집으로 거처를 옮겨 중학교도 마치고 시집도 갔지만 한겨울날 손발이 시리고 몸이 얼어들 때 아무리 살틀한 고모앞이라 해도 어머니에게처럼 춥다는 말을 선뜻 꺼내지 못하였었다. 하물며 강대나무도 튼다는 심산의 겨울에 해종일 밖에서 강의를 하고 무릎까지 잠기는 눈길을 헤치는 품이야 누구에겐들 쉽사리 터놓을수 있었던가.

남모르던 그 수고를 다 헤아려주시면서 몸과 마음을 해빛처럼 따뜻이 덥혀주시는 아, 경애하는 원수님!

* *

위대한 어버이께서 다 헤아려주시여 소문없이 흘러간 한 녀강사의 생활의 자욱들도 오늘 또 하나의 미담으로 수놓아지게 되였다.

마두산혁명전적지에서 그와 함께 일하는 김신관동무가 하루는 해질무렵 마을을 지나다가 누구인가 《강사네 터밭엔 범이 새끼를 치겠어.》 하는 말을 듣게 되였다. 박명순동무네 부부간이 다 맡은 일에 전념하느라 터밭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다니 그는 전적지의 터밭에서 배추에 통이 앉을 때 그의 집터밭엔 풀만 성할수밖에 없었다. 김신관동무는 그냥 지나칠수 없어 그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그가 한창 김을 매고있는데 강의를 마친 박명순동무가 나타났다. 김신관동무는 미안해하며 서둘러 밭에 들어서는 그를 말리면서 《늘 바삐 돌아가니 남새밭이 이렇게 풀밭이 됐군. 어제 아침엔 새로 쓴 강의안을 들여다보는 정신에 밥이 다 타는줄도 몰랐다지. 식구모두가 아침을 굶구. 명순동무, 집일도 할겸 하루만이라도 좀 쉬는게 어떻소.》 라고 말하였다.

박명순동무는 그 말에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전적지에 하루라도 강사가 비면 어떡합니까? 전 답사자들앞에서 구호문헌들에 대하여 해설할 때마다 나자신부터를 혁명선렬들앞에 세워보군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세여지는걸요. 전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어느때인가는 우리도 유평혁명사적지 동무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겠지요. 전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겠어요. 강의도 더 잘하고 전적지도 더 잘 관리하면서.》

그가 답사자들을 안내하며 걷는 강의길은 해마다 3 000여리에 달한다고 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기관총을 메시고 대원들을 이끄시며 앞장서 걸으신 백두밀림속행군길, 내 조국을 찾으시려 헤치신 항일의 혈전만리길… 그 길이 과연 어디로 이어졌던가. 내가 뛰놀았던 유치원의 꽃마당, 내가 걸었던 해빛밝은 대학등교길, 오늘의 우리 생활에 이어진것이 아니던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전적지길을 걷고걸었다.

우리 전적지의 저 샘물에도 사령부작식대원이 되시여 백두밀영의 새벽에 산나물을 다듬으시였고 한줌의 눈, 한모금의 물로 끼니를 대신하시며 간고분투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 비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외우며 답사자들을 이끌고 전적지의 샘물터도 찾군 하였다.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베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어이 알리라는 시구절을 새기며 그는 전적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천금보다 소중히 여기였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그에게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하군 하였다. 한번은 전적지일대의 어느 지명과 관련한 유래를 물었다. 그는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답사자들에게 주어야 할 정신적량식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산을 내리는 걸음이 무척 무거워졌다. 그는 그날로 자료발굴에 나섰다. 신발바닥이 다 닳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한달에 걸쳐 숱한 사람들을 만나 마침내는 정확한 지명유래자료를 쥐게 되였다. 박명순동무에게는 그렇게 애써 마련한 해설강의자료가 한궤짝이나 된다고 이곳 종업원들은 말하였다.

항일의 옛 전구에서 백두의 넋으로 살며 수천수만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고 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주는 영예와 보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것인가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던 그날 그는 초초분분 절감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벌려왔기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는 원수님을 우러르면서 혁명전적지 강사의 임무를 보다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새겨안으며 그이께서 어찌하여 강추위를 헤치시면서 승용차가 황토색먼지로 뒤덮이도록 현지지도의 먼길을 잇고이어 마두산을 찾으시였는지 심장으로 깨닫게 되였다.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나무에 새겨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보시고 하신 말씀을 박명순동무는 일생토록 잊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다고,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그는 좌우명으로 소중히 간직하고있었다. 뜻깊은 구호문헌앞에서 원수님께 그가 삼가 말씀을 올리던 그날의 목소리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답사자들마다 이 구호를 읽고는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였는가고,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강철의 의지로 선군길을 걸으시였기에 우리 공화국이 존재할수 있었고 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이 존엄높은 강국이 될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이 어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장군님처럼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의 길을 걷겠다고 결의다집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다진 그의 맹세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그는 구호나무앞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원수님께서 자기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그 신념의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 숭고한 뜻을 박명순동무가 어찌 순간인들 잊을수 있겠는가.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제가 강의를 해드렸으면 얼마나 잘해드렸겠습니까.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강의를 잘하였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습니다. 제 손이 얼어서 차다고 말씀올리였지만 꼭 잡아주시는데 글쎄 오래동안 밖에 계시여 우리 원수님 손이 제 손보다 더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신데도 저에게 앓지 말고 건강해서 일 잘하라고 따뜻이 이르시는것이였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 박명순동무는 절절하게 말씀올리였다. 여름이면 이곳의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전선길에 힘들고 피로하실 때마다 우리 마두산에 들리시여 잠시나마 쉬여가시여달라고…

마두산을 떠나 또다시 현지지도의 먼길을 가시며 손을 저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사무치게 안겨온다고 하면서 박명순동무는 혼자소리처럼 말하였다.

《언제면 또 오실가요? 전 그날만 그리면서 살겠습니다.》

* *

보위색제복에 붉은별 빛나는 모자를 쓰고 그는 오늘도 전적지의 강의길을 걷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그 모습을 한떨기 해바라기에 비겨본다. 자나깨나 령도자를 그리며 충정으로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이 심산유곡에 홀로 피여도 해빛을 따라 돌고 천송이, 만송이 대지를 덮어도 태양을 향해서만 피는 해바라기와 같고 마두산의 녀강사 또한 그러하기에.

글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종업원들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에 안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최근에 종업원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고있다. 그가운데서 몇가지를 여기에 전한다.

옮겨진 랭온풍기

강철종합직장의 영양제식당이 훌륭히 꾸려졌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당위원회책임일군은 일군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자체의 힘으로 가공설비들까지 그쯘하게 갖추어놓은 주방칸, 총석정의 해돋이를 형상한 미술작품, 멋있는 식탁과 의자들,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 록화기, 증폭기가 놓여있는 식사칸은 정말 나무랄데가 없었다.

이날 일군들은 영양제식당을 돌아보면서 누구나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나 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식사칸의 온도때문이였다.

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는 동행한 일군들을 어느 한 회의실로 이끌었다.

자책에 젖은 책임일군의 목소리는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 뜨뜻한 회의실과 온도가 높지 못한 용해공들의 식사칸, 대비해보라. 우리 용해공들, 종업원들을 친형제처럼 생각했는가.

일군들은 그자리에 그냥 서있을수가 없었다.

곧 일군들의 회의실에 있던 큼직한 랭온풍설비가 강철종합직장의 영양제식당에 옮겨지게 되였다. 그후에는 주체철분공장의 영양제식당에 그 다음에는 5층짜리 로동자합숙에 있는 식당과 로동자문화회관에도 꼭같은 랭온풍기가 놓이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일군들의 회의실들에 놓여있던 랭온풍기들이 모두 종업원들을 위하여 옮겨지게 되였다.

옮겨진 랭온풍기, 이것은 종업원들에 대한 일군들의 복무관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거울이다.

새로 일떠선 태양열온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 태양열온실건설문제를 놓고 긴급협의회를 소집한적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기업소에는 근 20개의 태양열온실이 있었는데 온실을 가지고있는 단위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련합기업소에서 벌리는 온실건설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있었다.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의 관점부터 바로세워주기 위하여 시급히 모임을 열었던것이다.

모임을 통하여 일군들은 기업소를 위한 일이자 자기 단위의 일이라는것을 자각하게 되였고 마음은 하나로 합쳐지게 되였다. 소결로직장가까이에 폐열을 리용하여 실리가 나는 태양열온실을 큼직큼직하게 건설하자는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

당위원회에서는 돌격대를 무어주고 태양열온실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걸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리상렬, 라승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돌격대원들을 이끌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 하루빨리 용해공들과 종업원들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10동의 태양열온실이 짧은 기간에 건설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여기서 생산한 많은 량의 푸르싱싱한 남새가 기업소의 모든 식당들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되였다.

새로 일떠선 태양열온실, 바로 여기에도 종업원들이 바라는 일이라면 한가지라도 더 크게 해주고싶어하는 당위원회일군들의 뜨거운 마음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덕을 보는 종합식료가공기지

종업원들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당위원회일군들의 립장이다. 이것은 지금 생산을 정상화하여 그 덕을 크게 보고있는 종합식료가공기지를 보아도 알수 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리종식동무를 비롯한 후방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미 튼튼한 축산기지를 꾸리고 여기에 종합식료가공기지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되여 젖소 200여마리에서 나오는 많은 량의 소젖으로 요구르트, 치즈, 빠다를 생산공급하고있으며 된장, 기름, 콩우유, 고급빵과 사이다를 비롯한 청량음료도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용해공들과 로동자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용해공들과 로동자들의 기쁨속에서 보람을 찾는 기명서, 리만수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축산물생산을 늘이고 식료가공품의 가지수와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뛰고있다. 현장에 자주나와 후방부문 일군들과 토론도 진지하게 하고 종업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런 나날속에 젖소로동이 훌륭히 건설된데 이어 수천마리의 돼지와 염소를 기를수 있는 건물들이 각각 일떠서게 되였다.

용해공들과 로동자들을 위하는 당위원회일군들의 일본새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오고있다.

본사기자 장 철 범

◎ 선거의 날을 기다리며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호구 제60호분구 선거위원회의 선거장은 찬성의 한표를 바칠 한마음을 안고 선거장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바쳐가는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선거의 날!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아도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요람, 고마운 인민정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그날부터 선거의 날을 기다리며 김춘복, 황향희, 김무숙동무를 비롯한 이곳 선거자들은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 선거장을 꾸리는 사업에 성심성의를 다하고있다.

—고마운 우리의 인민주권을 위해 모두다 찬성투표하자.

이것은 이곳 선거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불타는 맹세이고 한결같은 의지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 명 남

혁신의 봉화를 지피는 불씨가 되여

청단군 공로자강연선전대원들

청단군의 농촌들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 거름생산계획을 수행하고 모판자재준비를 끝내는 등 놀라운 농사차비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이 성과속에는 정초부터 들끓는 포전에 나가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준 군공로자강연선전대원들의 성실한 노력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커다란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하며 강연선전대원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는 이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청춘의 활력을 부어주었다. 특히 올해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농업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도록 한 당의 뜻을 되새겨볼수록 장엄한 투쟁의 해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 우리도 농업전선의 전투원이 되자. 우리가 새로운 혁신의 봉화를 지펴올리는 불씨가 되자.

지난 시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사업한 민정식동무의 이야기는 모두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지난 10년간 연 7 400여차례의 강연선전활동을 벌리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한 려운제, 윤순중동무를 비롯한 강연선전대원들은 농장들에 나가 강연선전활동을 더 활발히 벌리기로 하였다.

이들은 우선 자신들의 실무수준을 더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주타격방향에서 혁신의 봉화가 활활 타오르게 하자면 불씨가 좋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영찬, 리수훈, 김정경동무를 비롯한 강연선전대원들은 당의 농업정책과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하는것과 함께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지난해 군의 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후 포전에 나간 이들은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당정책해설선전과 결부하여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 농장, 작업반, 분조들의 경험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구수한 말로 이야기해주었다.

리용구동무의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도 흥취가 나게 부르며 진행하는 이들의 강연선전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실감이 있어 농업근로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나이가 많은 몸으로 농장들을 찾아 머나먼 길을 오가며 강연선전활동을 벌린다는것이 결코 헐한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알곡증산을 위한 보람찬 길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려는 한마음을 안고 맵짠 추위속을 헤치며 걸음을 쉬임없이 옮겼다.

그 길에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받아안고 더욱 분발해나선 이들은 이 력사적인 로작에 제시된 과업을 반영하여 강연선전을 보다 참신하게 해나갔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강연선전의 내용과 방법으로부터 조건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이들을 적극 도와주고 힘껏 떠밀어주었다. 여기에서 큰 힘을 얻으며 이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농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에 나가 수십차례의 강연선전활동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강연선전을 마칠 때마다 이들은 심장의 목소리로 절절히 호소하였다.

《올해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립시다.》

여기에 화답하는 농업근로자들의 웨침소리는 또 얼마나 힘찬것이였던가.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겠습니다.》

그 불타는 맹세가 실천으로 이어져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농장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강연선전대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강연선전활동의 길을 힘차게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조중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돐에 즈음하여 21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정위 문화부 부부장, 하홍화 민용항공국 부국장을 비롯한 중국의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지재룡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떠나갔다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해외동포들이 떠나갔다

박용하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대표단과 김남수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사무국장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송하였다.

또한 김현환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표단이 비행기로 갔다.

이에 앞서 리채선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이 돌아갔다.

한편 제18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였던 최룡호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과 일행이 22일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비약하는 조국의 현실이 반영된 실감있는 예술적화폭

광명성절경축 제5차 전국소묘축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고

2.16경축 제1차 전국소묘축전이 진행된 때로부터 수년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전국소묘축전이 진행되면서 소묘를 통하여 생활을 아름답고 정서적으로 표현하며 대상의 특징을 정확히 포착하는 사람들의 능력도, 작품들의 예술적형상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다.

광명성절경축 제5차 전국소묘축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하나의 조형적형상으로 시대를 특징짓고 한폭의 화면에서 생활의 전모를 보여주는데 미술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광명성절경축 제5차 전국소묘축전에 출품된 작품들가운데서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면서도 독특한 기법으로 창작되여 참관자들의 주목을 끄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감정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미술은 사람의 내면세계를 외모와 운동상태를 통하여 보여주며 생활을 조형적화폭으로 펼쳐보인다. 미술가는 현실에서 사람의 얼굴표정, 동작, 자세 같은것을 세심하게 보고 그에 대한 형태묘사를 잘하여야 인물의 생동한 성격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승리자들》, 《잠복》, 《격랑속에서》를 비롯한 작품들은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이 가장 값높은 애국적인 삶이라는것을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작품들이다.

사람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력량상 대비가 너무도 엄청난 적들과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히 싸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월미도용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위훈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운 영웅들의 넋은 오늘도 래일도 우리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소묘작품에 우리 새 세대들이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조국수호정신, 숭고한 애국주의감정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하기 위해 창작가는 계기설정을 이전의 작품들에서와 같이 최후의 순간으로 형상하지 않고 승리자들의 모습이 강하게 부각될수 있도록 전투에서 적의 군함을 단방에 명중시키고 통쾌하게 웃고있는 영웅들의 랑만적인 모습으로 형상하였다.

작품 《승리자들》을 보면 종래의 묘사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새롭고 독특하게 그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것이 확연히 알린다.

우선 연필선을 최대로 살리면서 강한 대조로써 매 인물의 개성적특징과 포연서린 전투분위기를 부각시키였다. 그리고 해병의 얼굴에 난 상처라든가 파편에 찢긴 모자와 군복자락 등 모든 세부묘사도 본색을 파악한 상태에서 단번에 뚜렷한 연필선을 살리면서 전반적인 화폭을 하나의 기교로 통일시켰다.

연필선을 최대한 살리는 독특한 기교로 운동감과 립체감이 강하게 느껴지도록 형상하는데 초점을 둔 작품 《승리자들》과는 달리 《잠복》은 보다 부드럽고 선명하게, 보다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형상하는데 모를 박았다고 볼수 있다.

작품 《잠복》을 보면 조국의 초소를 지키고있는 인민군전초병들의 굳센 모습을 흰눈속에서 대조시켜 더욱 뚜렷이 안겨오게 하였다. 특히 예리한 눈초리로 감시근무를 서고있는 두 인물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그들을 둘러싼 눈무지를 눈의 푸근한 질감이 잘 살아나게 하면서도 생략수법을 써서 대조시켰다.

작품 《격랑속에서》는 병사와 지휘관이 어깨를 겯고 일심동체가 되여 사품치는 격랑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생동하게 묘사되였다. 물에 젖은 군복의 질감, 사품치는 물결의 움직임, 군인이 어깨에 멘 기관총의 묵직함이 생동하게 묘사됨으로써 《전군이 하나의 동지가 되자!》는 구호의 요구대로 훈련의 나날에 발휘되는 관병일치의 참모습이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감정은 조국수호의 정신과 그 실천으로만 표현되는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 선군의 내 조국을 빛내이려는 의지와 그 실천으로도 표현된다. 그런 작품들가운데는 《만선의 메아리》, 《세계를 앞서자》와 같은 작품들도 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 힘차게 울리며 포구로 돌아오는 어로공들의 희열에 넘친 모습에는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의도가 풍만한 예술적형상으로 반영되여있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더 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도 반영되여있다.

《세계를 앞서자》도 아주 특색있는 작품이다. 지난 시기 마라손경기장면을 형상한다면 대체로 결승테프를 끊는 장면이라든가 시상대에서 승리의 기쁨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형상한 실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작품 《세계를 앞서자》에는 경기주로를 달리는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화폭에 다같이 등장되였으며 그 맨 앞장에서 우리 나라 선수가 달리는것으로 형상되여있다.

그리고 소묘수단도 연필이 아니라 붓을 써서 선수들의 각이한 운동에 따르는 동작들을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달리는 률동감이 진실하게 느껴지도록 묘사를 하였다.

이 작품은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것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불굴의 의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의 기상을 의미심장하게 시사해주는것으로 하여 여운이 있고 매력적인 작품이다.

비약하는 조국의 현실을 하나의 화폭에 비끼게 한 전문가부문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특징은 모든 창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현대적 미감에 맞는 독특한 소묘기법을 찾아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고 그것을 자기들의 작품창작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것이다.

전문가부문의 창작가들이 독특한 소묘기법을 써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감정을 군대와 인민의 투쟁모습으로 생동하게 묘사하였다면 비전문가부문의 성인들과 중학교, 소학교의 학생들, 유치원어린이들, 예술교육부문의 학생들은 비약하는 조국땅우에 이룩된 훌륭한 창조물들과 거기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사랑의 해빛넘치는 승마장》, 《명중이다》, 《1학년생》, 《경기를 앞두고》, 《학교의 자랑》, 《새끼를 많이 낳은 엄마돼지》를 비롯한 작품들을 보면 생활을 자기 시점에서 정서적으로 투시하여 자기 식으로 그려낸 비전문가부문의 성인들과 중학교, 소학교의 학생들, 유치원어린이들, 예술교육부문의 학생들의 열정과 재능이 안겨온다.

당의 은정속에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말을 타고 너무 좋아 어쩔줄 모르는 어린 아이의 모습, 전자오락판에서 목표를 향해 사격을 하는 꼬마의 유쾌한 모습을 묘사한 작품들인 《사랑의 해빛넘치는 승마장》, 《명중이다》에는 대중봉사기지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어린이들의 희열과 랑만이 짙게 반영되여있다.

특히 작품 《명중이다》에 묘사된 꼬마의 성격묘사가 진실하고 생동하다.

비뚤어진 모자, 얼굴로 흘러내리는 땀방울, 목표를 명중시켜 탄성을 터칠 때의 입모양, 헤쳐진 옷깃을 통해 아이의 심리적표현을 방불하게 묘사하였다.

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생이 집에 돌아와 뜰안에 앉아서 열심히 숙제를 하고있는 평범한 생활의 단면을 묘사한 작품 《1학년생》도 동심적성격을 잘 살린 화폭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글짓기를 하는 나어린 학생의 모습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받아안는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여 어서빨리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리라는 굳은 맹세가 비껴있다. 그런가하면 글짓기하는 1학년생의 숙제장을 옆에서 지켜보는 강아지, 뒤벽에 소담하게 매달려있는 고추와 강냉이이삭들의 묘사는 사회주의농촌의 향토적인 정취를 잘 살리고있다.

정물소묘 《경기를 앞두고》, 《학교의 자랑》도 자기 고유의 특색이 있다.

체육주제의 소묘작품들이지만 두 작품은 뚜렷한 구별이 있다.

《경기를 앞두고》는 축구경기를 앞두고 전술토의를 하는 긴장한 정황을 포착하여 묘사한것이고 《학교의 자랑》은 우승컵과 메달, 상장들을 통하여 우수한 체육인재를 많이 배출한 성과를 긍지높이 추억하는 감정을 담았다.

《경기를 앞두고》는 정물소묘이지만 잔디축구장의 사람그림자를 통하여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긴장한 심리적상태를 잘 보여주고있으며 축구화와 축구공의 질감을 가죽재질이 느껴지게 아주 잘 살렸다. 《학교의 자랑》은 물체의 재료를 잘 파악한데 기초하여 우승컵과 메달의 질감을 빛반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묵직하면서도 광택이 나게 묘사하였다.

우리의 체육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관철하는데서 두 작품은 다 자기의 몫이 있고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 화폭들이다.

유치원어린이가 그린 작품 《새끼를 많이 낳은 엄마돼지》도 어미돼지와 개성이 뚜렷한 17마리의 새끼돼지를 유모아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동심의 눈에 비낀 축산부문 근로자들의 투쟁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비전문가부문의 작품들은 그 어느것이나 자기의 가장 가까운 생활의 단면들을 소재로 잡고 소박하면서도 꾸밈없이 묘사한것이 특징적이다.

멀리 떨어져있는 생활, 추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발붙이고 사는 주위의 평범한 생활에서 소재를 골라잡고 그린 그 지향이 아름답고 소중한것이다.

이처럼 숭고한 애국주의감정, 비약하는 조국의 현실이 반영된 광명성절경축 제5차 전국소묘축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날로 개화발전하는 주체미술의 면모를 시위하고 우리 조국의 더 좋은 앞날을 환희롭게 그려보게 하는 훌륭한 예술적화폭들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소묘 《승리자들》

소묘 《사랑의 해빛넘치는 승마장》

다음주에 진행될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1급, 청년급)의 경기들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1급, 청년급)의 경기들이 다음주에 계속 벌어지게 된다.

24일부터 삼지연에서 속도빙상경기(1급, 청년급)가 시작되여 26일까지 진행된다.

경기에는 대성산, 장자산, 대령강, 성천강, 사자봉체육단 등에서 선발된 많은 남녀선수들이 참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대성산, 평양철도국,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체육단의 남녀선수들이 출전하는 빙상휘거경기(1급, 청년급)는 25일부터 28일까지 빙상관에서 있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교정에 차넘치는 체육열풍

강선금속전문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나라가 체육으로 흥성거리게 하고 누구나 다 운동을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려면 기관, 기업소들에서 대중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명절날이나 일요일 같은 때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강선금속전문학교에서는 추위를 밀어내며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축구, 배구 등 여러 종목의 학급별체육경기들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결승경기에 이른것이다. 야무진 호각소리와 교내를 뒤흔드는 응원소리,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노래부르는 청년학생들의 생기발랄한 모습들…

학급별경기도 볼만 하지만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합된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드높은 응원열기로 하여 이날 학교는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우리와 만난 학교청년동맹일군인 고현남동무는 오늘의 경기는 활발한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키워가며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해가는 학생들의 열정넘친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류영철, 강성만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대중체육활동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학생들에게 혁명적열정과 랑만을 북돋아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보았다.

여러가지 체육시설들과 기재들을 갖추어놓은것을 비롯하여 조건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우면서 체육활동에서 자신들부터 가 앞장섰다.

학교적인 체육경기때마다 일군들이 직접 경기에도 참가하고 심판도 서면서 체육사업의 수준과 대중의 체육열의를 더욱 높여나갔다.

체육이 대중화, 생활화되면서 대중의 요구는 더욱 높아졌다. 학과학습에서도 체육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만만치 않은 승벽심에 의하여 체육경기는 더욱 이채롭게 진행되였다.

학급별, 학년별도전경기, 경기방법도 승자전으로부터 련맹전으로…

보다 주목을 끈것은 교원들과 학생들의 높은 집단주의정신이였다. 경기때마다 선수는 물론이고 자기 학급의 명예를 위해 응원기세를 더욱 부쩍 올리는 그들의 열정은 참으로 불같다.

교정에 차넘친 드세찬 대중체육의 열풍은 그대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끊임없는 교육사업성과에로 떠밀어주는 또 하나의 추동력으로 되였다.

최근년간에만도 강좌장들인 맹원식, 장동혁동무들이 학위소유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여러명의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로 되였다. 체육을 잘하는 학급이 학과실력에서도 앞장서고있다.

드세찬 체육열풍과 더불어 청춘의 랑만과 희열이 끓어번지는 강선금속전문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다방면적인 선군시대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학생들의 신심넘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전철호

바다양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길러 그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바다양어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바다양어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기술수준과 경제적효과성도 다르다.

바다양어방식에는 그물우리양어, 공업화양어, 못양어, 그물울타리양어 그리고 항만양어 등이 있다.

그물우리양어는 오늘 세계적으로 바다양어의 기본방식으로 되고있다.

관리가 간단하며 이동이 쉽고 생산량이 많으며 경제적효과성이 큰것으로 하여 그물우리양어가 널리 적용되고있다.

바다그물우리의 종류도 크기와 형태, 형식에 따라 다양하다.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100~400㎥)의 그물우리가 있고 형태에 따라 정방형, 원형, 다각형, 구형 등의 그물우리가 있으며 설치방식에 따라 이동식, 고정식, 굴림식, 가라앉힘식의 그물우리 등이 있다.

공업화양어는 집약양어방식으로서 여기에는 주로 완전닫긴물순환식양어와 반닫긴물순환식양어가 있다. 닫긴물순환식양어는 현대공업화양어에서 기본방식으로 되고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양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양어계통을 확립하고있다.

양어체계의 현대화, 정밀화, 지능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못양어는 바다와 린접한 륙지나 간석지에 못을 만들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방법이다. 이 양어방식은 정밀양어방식으로서 물고기를 집약적으로 섞어기르는데 적합하며 관리가 편리하고 생산량도 높다. 최근에는 양어시설과 수역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물고기와 새우, 물고기와 조개, 물고기와 게 등 섞어기르기양어방식으로 발전하고있다.

바다양어대상으로 되는 물고기종은 기르기가 쉽고 빨리 자라며 상품적가치와 수요가 높은것으로 선정되고있다.

바다양어대상으로 되는 주요물고기종류로는 숭어류, 넙치류, 가재미류, 도미류, 뱀장어류, 보가지류, 우레기류, 민어류, 농어류, 철갑상어류, 열대붕어류 등을 들수 있다.

성장이 빠르고 생활력이 강하며 병견딜성과 스트레스견딜성이 강한 물고기육종에 힘을 넣고있다.

바다양어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물고기종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맞는 양어용먹이를 개발하고 물고기의 질병에 따르는 진단과 예방치료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이 적극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물우리양어를 비롯한 바다양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박사, 부교수 김룡길

전쟁로병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

벽동군 권창리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그들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리당비서 김성철동무를 비롯한 리당위원회 일군들은 전쟁로병들의 집에 자주 찾아가 보약들과 생활필수품들, 새 도서들도 안겨주고있다.

여기에 고무된 권창리 1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윤재찬전쟁로병은 자기를 전승 59돐과 60돐 경축행사에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수십t의 거름을 포전에 냈다.

리당일군들은 전쟁로병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그들의 모범따라 농장원들이 당면한 농사일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준갑

봄철의 잔디밭비배관리(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지구와 철길주변, 공원들에는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 생땅이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봄철잔디밭비배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눈썩음병을 미리막는것이다.

눈썩음병은 잔디밭우에 쌓였던 눈이 녹아 고이면서 발생한다. 회색눈썩음병과 분홍색눈썩음병으로 갈라볼수 있다.

회색눈썩음병의 증상은 잎이 죽고 퇴색되여 뭉그러진 직경이 5~60㎝정도 되는 회색을 띠는 구역이 형성되는것으로 나타난다.

봄에 눈이 녹은 다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구역의 딱딱하게 엉킨 잎들을 부스러뜨리고 긁어 없애여 잔디가 새로 자랄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분홍색눈썩음병은 쌓인 눈밑에서 발생하는 눈썩음병의 하나이다. 잔디잎에 있는 분홍색포자무지에 의하여 분홍색의 병반이 생기는 병이다. 이 병이 발생하면 잔디잎은 물론 뿌리까지 죽을수 있다.

눈썩음병을 미리막자면 잔디밭에 쌓인 눈이 녹아 고이기 전에 쳐주어야 한다.

봄철에 겨울기간 얼었다가 녹으면서 부풀어오른 잔디밭토양을 다져주는것이 중요하다.

이른봄에 토양의 웃층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은 아래의 얼어있는 층으로 흐르면서 다시 랭각되여 부피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하여 잔디밭토양의 웃층이 부풀어오르면서 잔디뿌리들이 끊어지게 된다.

잔디밭다지기는 100㎏정도 되는 로라다짐기를 리용하여 한다.

봄철잔디밭비배관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물주기를 잘하는것이다.

잔디밭물주기는 일반적으로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사이에 얼었던 토양이 풀리고 하루평균기온이 0℃이상 올라갈 때 한주일주기로 하되 될수록 빨리 하여야 한다.

하루평균기온이 0℃정도 되면 낮기온은 5℃이상 되므로 토양온도가 높아진다. 이 시기에 물주기를 빨리 하면 잔디밭이 인차 푸르러지게 할수 있다.

이른봄에는 선선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물주기를 하여야 증발에 의한 손실을 막을수 있다.

봄철에 10일이상 잔디밭에 물을 주지 않으면 잔디가 시들기 시작하고 탄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추운계절형잔디밭에 보통 한주일에 한번씩은 물을 주어야 한다.

물주는 량은 15㎝이상 깊이의 토양을 적실수 있도록 1㎡당 최소한 10L이상 주어야 한다. 그것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한주일동안에 1㎡의 잔디밭에서 25L까지의 물이 증발하여 10㎝깊이까지의 토양이 마를수 있기때문이다.

물주기는 아침일찌기 하는것이 좋다.

물주기를 매일 약간씩 뿌려주는 식으로 하는것은 유리한 점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다.

물주기회수는 날씨와 잔디밭토양의 류형에 따라 정한다.

모래질토양의 잔디밭은 점질토양이나 약한 점질토양의 잔디밭에 비하여 가물을 쉽게 타므로 물을 더 자주 주어야 하며 그늘이 진 잔디밭에는 드물게 주어야 한다. 물을 매일 주는것보다 적당한 기간간격으로 주어야 잔디의 뿌리계통이 잘 발달된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실장 김룡석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분렬의 한을 풀자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진행

【금강산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에서 우리측 가족, 친척들이 남측의 혈육들을 만났다.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남녘의 혈육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보람찬 나날들에 대해 전해주며 자기들뿐아니라 온 가족이 고마운 조국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

22일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남측의 혈육들과 작별하였다.

북과 남의 혈육들은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을 약속하였다.

2월 23일부터 우리측 상봉자들이 남측의 가족, 친척들과 만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천하절승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감격적인 상봉이 진행되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열린 이번 상봉은 우리 겨레는 수십년 갈라져 살아도 영영 둘로 가를수 없는 한민족이며 가슴속에서 끓고있는 통일열망은 실로 뜨겁고 강렬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번 상봉장소에서 우리와 만난 황해남도 옹진군에서 사는 양상환,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사는 유기정,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사는 곽윤성로인들은 자신들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이렇게 터놓았다.

상봉장에서 울려나온 눈물에 젖은 목소리

기자: 혈육들과 꿈같은 상봉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양상환: 나는 이번에 지난 전쟁시기에 헤여졌던 사촌형과 60여년만에 만났다. 그동안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있던 형님을 정작 만나고보니 반가움에 앞서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미제에 대한 분노가 더욱 뼈에 사무친다. 우리는 사촌간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집안에서 함께 자랐다. 어렸을 때 정말 사이가 좋았다. 그렇게 화목하던 우리가 누구때문에 갈라졌는가. 미국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난 지난 1950년 그해에 우리 마을에는 미제가 원자탄을 떨군다는 어마어마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때 우리 큰아버지는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만이라도 살아남게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사촌형을 데리고 집을 떠났었다. 미제는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는것을 피할수 없다는것을 알고는 우리 민족을 몰살시켜서라도 우리 공화국을 이겨보겠다고 원자탄위협을 가하였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외세에 의하여 생리별을 당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우리처럼 미국때문에 헤여져서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유기정: 나도 이번에 어렸을 때 헤여졌던 누이와 감격적으로 상봉하였는데 우리 남매가 갈라지게 된것도 바로 미국의 원자탄위협때문이였다. 이번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나온 사람들 거의다가 전쟁때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의해 생리별당한 당사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다. 여기에 와서 세상에 없는줄 알았던 혈육들과 눈물속에 만나면서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더욱 똑똑히 알수 있었다.

곽윤성: 나는 이번에 얼굴조차 모르던 외삼촌과 만났다. 원래 이 자리에는 누이인 우리 어머니가 왔어야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년세도 많고 몸이 불편하여 내가 대신 오게 되였다. 분렬의 쓰라린 세월속에 대가 거듭 바뀌도록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언제까지 원한의 분계선을 그대로 두고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하겠는가. 혈육들과 몇차례 만나본다고 해서 수십년간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원한의 상처는 아물수 없다. 한시바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들으니 북과 남사이에 이번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될 때 미국의 핵전략폭격기가 조선서해의 직도상공을 미친듯이 맴돌며 핵폭탄투하훈련을 했다고 한다. 미국은 오랜 세월 저들때문에 리별의 눈물을 흘려온 우리 혈육들이 어쩌다 만나는것조차 배가 아파 지난 전쟁때와 같은 핵공갈을 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민족을 적대시하고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이런 외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상봉의 기쁨조차 마음껏 누릴수 없다.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것이 바로 민족의 분렬이고 그냥 놔둘수 없는것이 조선민족의 원쑤인 미제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돌아가면 자식들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본사기자 박철준 (현지에서 전송)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적사명감을 지니시고

이 땅에 민족사의 새시대, 조국통일의 시대를 밝히는 홰불이 타오르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열정이 끝없이 솟구치고있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고 힘차게 전진하는 겨레의 발걸음소리는 강산을 진감하고있다.

민족의 이 장엄한 조국통일대행진의 진두에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오신 불면불휴의 선군령도의 나날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념원하시던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실록이 엮어지는 뜻깊은 나날이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유훈을 지켜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 위대한 령도는 민족을 피눈물의 바다에서 일떠세우고 겨레의 조국통일대행진을 추동한 힘의 원천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주체101(2012)년 3월초 민족사에 아로새겨진 뜻깊은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지나가는 바람소리에도 반사적으로 격발기에 긴장이 서린다는 세계최대의 초긴장지대로 공인된 판문점, 이 위험천만한 곳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시찰하시였다. 백두의 억센 기상과 담력,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굳센 통일의지를 지니신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숭엄한 격정을 안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 이윽토록 서계시였다.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업적을 영원토록 길이 전하시기 위하여, 온 겨레를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민족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땅에 세워주신 기념비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시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걷고걸으신 령도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더듬어보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였다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 세차게 끓고있은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선다고 해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철의 의지,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는 확고한 결심이였다.

우리 겨레는 판문점에 력력히 새겨지는 그이의 걸음걸음에서, 분렬의 장벽을 울리는 그이의 한마디한마디의 말씀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페부로 새기며 격정과 환희에 휩싸이였다.

생각해보시라.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여 피눈물의 바다, 비애와 통탄속에 몸부림치던 우리 겨레였다. 누구도 우리 민족이 그 크나큰 슬픔을 이겨내고 더욱 힘차게 일어나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는 진군길을 이어가리라고 생각지 못하였다. 내외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미쳐날뛰던 때여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사상과 령도풍모, 덕망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헤아릴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시면서도 오히려 겨레와 조국을 생각하시며 걸음걸음에 철석같은 통일의지를 담아 판문점을 시찰하신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은 이룩된다는 확신이 있어 온 겨레는 주저앉지 않았다.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해야 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나섰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책임지는 령도자의 위대성은 참기 어려운 일신상의 고통을 대의를 위해 힘으로 바꾸는 견인불발의 의지에 있으며 시련앞에 주저앉은 인민들을 힘과 용기를 주어 다시 일으켜세우는 불가항력적인 견인력에 있다.

정녕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 같은 슬픔에 모대기던 우리 겨레를 통일대진군길에 용약 불러일으켜 통일의 날을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신념과 령도력은 얼마나 비범한것인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는 강철의 의지와 불패의 힘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며 력사를 힘차게 밀고나가는 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관철해나가시는것을 철칙으로 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도, 통일운동을 새롭게 앙양시킬 방향과 방도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에서 찾으시였으며 조국통일투쟁이 철저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훈을 실현하는데 지향되도록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이 전파를 타고 세계에 전해지던 그 시각 온 겨레는 얼마나 커다란 환희에 휩싸였던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힘을 모아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도 력력히 어려있다. 그이께서는 온 겨레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위업에 부합되는것은 애국애족이고 그에 배치되는것은 매국배족이며 오늘날에 와서 애국애족의 최고표현은 민족의 자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조국통일이라는 철의 진리를 새겨주시였다.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통일애국의 성스러운 길에서 생을 빛내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민족의 어버이가 바로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신년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숭고한 애국애족의 결단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해라고 하시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공화국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 이어 공개서한이 발표되여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밝혀주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숭고한 덕망, 탁월한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의 앞길은 끝없이 창창하다.

본사기자 김 향 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에 있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 등에 합의하고 그것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지금 이 합의에 대한 지지여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 겨레의 실망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는 북남사이에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와 《대북심리전은 별개》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에 따라 이번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에서는 《대북심리전》의 비중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남조선의 통일부도 《북인권을 강조》하는것은 《비방중상과 별개》라고 하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더욱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다.

한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범하고 아량있는 조치들을 중상모독하는 반공화국모략선전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상대방의 제의에 오히려 모략과 중상으로 대답하는 이러한 무례한 행위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민족의 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온당치 못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의 주장은 저들의 《대북심리전》이 비방중상과 《무관계》하고 이번 북남고위급접촉에서도 론의되지 않았기때문에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것인데 그야말로 생억지가 아닐수 없다. 심리전은 대결을 전제로 하는 도발행위이며 이것은 호전분자들이 써먹는 상투적수법이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대북심리전》은 전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그것은 북남사이의 무력충돌과 전면전쟁을 발생시킬수 있는 주요요인으로 되고있다.

묻건대 《대북심리전》이 비방중상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것이 비방중상으로 되는가 하는것이다. 이번 북남고위급접촉에서의 비방중상중지합의의 기본규제대상이 《대북심리전》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그 강행을 계속 고집해나서는 남조선군부세력의 처사는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속심을 드러낸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더욱 확대하려는 통일부의 처사 역시 그러한 흉심의 발로이다.

허위와 모략, 날조로 일관된 《북인권》소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격화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그런데 명색이 통일문제를 말아본다는 통일부가 북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벌어지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여가고있는 민감한 시기에 《북인권문제제기는 비방중상과 별개》라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장내는것은 오늘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선결조건이다. 그런데로부터 우리는 공화국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해 서로가 상대를 자극하는 비방중상과 불신과 대결을 낳는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릴것을 호소하고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며 모든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세우며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채택된 합의와는 심히 저촉되는 언동을 하고있으니 이것은 계속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으며 동족대결에로 나가겠다는 공공연한 선포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하여야 할 때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증대시키고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비방중상을 당장 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민족과 세계여론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허 영 민

평화를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중지를 요구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재미동포들이 1월 24일과 25일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좌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와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되자면 북남사이의 합의들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더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남조선당국이 《5.24조치》를 철회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 연설

18일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대표는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사업이 유엔을 개혁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본 특별위원회가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유엔총회의 권능을 강화하는것이다.

유엔성원국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유엔총회는 그 구성과 성격, 사명을 놓고볼 때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할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기구이다.

반면에 몇몇 극소수 나라들로 구성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결코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수 없다.

더우기 특정한 국가가 자기의 전략적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안전보장리사회를 악용하고있기때문에 리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심히 떨어지고있다.

우리는 제재와 무력사용 등 세계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이 철저히 총회의 권능과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본 특별위원회가 비법적인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한다.

《유엔군사령부》는 그 조작경위에서 비법적이며 그 존재방식에서도 유령적이다.

유엔과의 관계에서 그 무관함은 이미 력대 유엔사무총장들의 증언과 공식문건 등을 통하여 거듭 확인되였다.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의 견지에서 보아도 그렇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고 해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우리 겨레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최고수뇌부의 뜨거운 호소를 받들어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고위급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대결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개선에로 나갈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놀라움을 자아내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이다.

미국은 북남대표들이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있는 바로 그 시각에 대화를 환영하고 고무해줄 대신 조선반도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날려보내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공화국을 타격목표로 하는 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철두철미 도발적이고 침략적인것이다.

지난해 군사연습시 미국이 초대형핵추진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집중전개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던 사실은 이 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며 핵재난을 막기 위해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지 말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대화와 침략전쟁연습, 화해와 대결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미국이 북남관계에서 모처럼 마련되고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존중하지 않고 한사코 합동군사연습강행에로 나가는 경우 조선민족의 분렬을 지속시키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될뿐이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국경절을 맞는 브루네이 다루쌀람

브루네이는 동남아시아의 깔리만딴섬북부에 위치하고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수도는 반다르 세리 베가완이며 국호는 브루네이 다루쌀람이다. 다루쌀람이란 말은 아랍어에서 유래된것으로서 《안락세계》라는 뜻이라고 한다.

오랜 기간 식민주의자들의 예속밑에서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던 브루네이인민은 투쟁으로 1984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2월 23일을 국경절로 기념하고있다.

브루네이는 독립후 원유와 천연가스채취를 기본으로 하는 민족공업을 발전시켜왔다. 이것은 나라의 물질적복리를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이 국가수입의 많은 몫을 차지하며 로동인구의 대부분이 여기에 종사한다. 확인된 원유매장량은 14억bbl이다.

비록 령토(5 765㎢)가 작고 인구는 40여만명밖에 안되지만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자원을 가지고있어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현재 이 나라는 인재육성에 힘을 넣고있다.

브루네이는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발전하는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보기술교육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아세안성원국인 브루네이는 아시아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일체화를 위한 아세안경제공동체건설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신뢰를 강화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여러 나라들과 교통과 통신, 에네르기, 농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오늘은 브루네이국경절 30돐이 되는 날이다.

김 철 룡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스리랑카가 12일 정치, 방위 및 안전, 경제, 해양 등 분야에서 전략적협조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흐르바쯔까와 인디아는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로씨야와 에짚트가 13일 두 나라사이의 군사적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마로끄는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 쌍무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웰남에서 조류독감예방사업

로씨야 우크라이나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책동 단죄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알렉싼드르 루까쉐비치가 17일 우크라이나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책동을 폭로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정세와 관련하여 말로는 이 나라 인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면서 실지로는 우크라이나정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서방식발전방향을 강요하려 들고있다고 까밝혔다. 심지어 미국이 무질서를 조성한자들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중지하며 다당제정부수립에 지체없이 착수할것을 주권국가의 정부에 내리먹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와 같은 극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것은 멀지 않은 력사적사실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있다고 강조하였다.

핵협상에 대한 립장 천명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17일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가 세계렬강들과 진행하는 핵협상에 대해 락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인권》과 미싸일문제를 걸고들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이 이슬람교혁명의 원쑤라는것을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그는 미국의 적대행위는 협상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것이 아니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싸일위협은 어디서 오는가

미국이 또다시 판에 박은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은 우리의 핵과 미싸일이 세계를 《위협》하고있다느니, 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싸일방위체계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보다 앞서 미군부의 여러 고위인물들도 미국회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라는데서 우리의 미싸일이 아시아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미싸일방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미국이 내드는 근거라는것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미싸일이 주변나라들은 물론 미국본토까지 타격할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이며 이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추종세력들과 함께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해 운운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미싸일이 《위협》으로 된다는 여론을 내돌리며 국제사회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 납득시키려고 하였다.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하다면 미국의 주장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명백히 아니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미국은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세계를 기만하며 강짜를 부리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미싸일이 사거리가 길기때문에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데 언어도단이다.

세계에는 사거리가 긴 미싸일을 보유하고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미국도 례외가 아니다. 미당국자들의 론리대로라면 그러한 미싸일을 가지고있는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위협으로 된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우리의 미싸일만이 《위협》으로 된다는 주장을 해대고있다.

이것자체가 억지이다. 더우기 우리를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위협의 가해자로 몰아댄것은 더욱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원래 미싸일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공격용미싸일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세계도처에 배비해놓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고있는 미국에 우리와 같이 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들이 할 소리이다.

우리의 미싸일은 철저히 자위를 위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라면 그에 대해 하등의 위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거꾸로 우리의 《위협》설을 떠들며 《방어》에 대해 외워대고있다. 이것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미싸일 《위협》을 기정사실화하여 세계제패를 노린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싸일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가 우리의 미싸일공격을 막기 위한것이라는 설명을 달고있지만 그것은 유치한 구실에 불과한것이다. 현재의 미싸일규모만 놓고보아도 그것이 우리 나라만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라는것은 자명하다. 미국이 구축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망은 유럽전체와 중동은 물론 알라스카로부터 일본, 남조선, 필리핀, 오스트랄리아까지 포괄하고있다. 방대한 자금이 요구되는 이 거대한 미싸일방위체계가 우리의 미싸일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싸일방위체계의 형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의 잠재적적수들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형태로 구축되고있다.

실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방어용이라면 전개지역이 나토나 미국을 멀리 벗어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과 미국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포위하고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과 반미국가들을 겨냥한 미싸일공격체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로씨야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국제안전쎈터 소장 알렉쎄이 아르바또브가 《미국의 전역미싸일방위체계와 지역미싸일방위체계의 90%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되였다. 공식적으로는 조선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것이다.》라고 한것, 로씨야전략로케트군 이전 참모장 윅또르 예씬이 《미국은 교활하게도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가 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거짓이다. 미국은 로씨야와 중국의 핵잠재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역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전혀 비대칭적이다.》라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파렴치한 기만이다.

미국이 마치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우리가 《위협》을 조성하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며 기만선전놀음에 그처럼 열을 올리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있다.

미국은 바로 있지도 않는 우리의 미싸일《위협》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증강과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밑에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강력한 경제군사적힘을 가진 대국들이 집중되여있다. 미국은 이 나라들을 지역을 좌우지하는데서 저들에게 도전할수 있는 잠재적적수로 보고있다. 최근년간에 들어와 이 나라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서로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있다. 이것은 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노리는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잠재적적수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도 그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이것을 통하여 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대국들을 제압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은 여러 나라들의 강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있다. 그래서 고안해낸것이 우리의 미싸일 《위협》이며 그것을 더욱 부각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과 무력증강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미국방성의 고위인물들이 그 무슨 미싸일《위협》을 거들며 알라스카의 포트 그릴리기지의 미싸일수를 늘이고 괌도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를 보강하는 등 《방어능력》을 확대하였다고 한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강화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될것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랭전을 몰아오고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대응하여 지역의 대국들이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지역에서는 대국들사이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부득불 자위를 위해 군사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군사적대결과 충돌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우리의 미싸일《위협》설을 내돌리며 그 막뒤에서 무력증강과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다그치고있는 미국의 책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싸일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있으며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위협국가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있지도 않는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거기에 속아넘어갈 나라는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 인민들은 지역에서 대결과 긴장격화가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이것을 외면하고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군사적소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국제적고립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 학 남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최근 히드로겔박막을 리용하여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흡수능력이 대단히 높은 중합물인 히드로겔박막은 자체무게보다 훨씬 많은 물을 저장할수 있으며 모래땅과 접촉하는 경우 물보존능력과 영양물질분배능력이 높아진다.

히드로겔박막을 리용하여 자래우는 농작물의 뿌리는 박막의 웃면에서 퍼져나가며 박막은 그밑에 있는 물과 영양성분을 흡수하여 웃면의 농작물에 공급한다.

히드로겔박막을 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면 물소비량은 90%, 비료소비량은 80%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50% 늘일수 있다. 또한 콩크리트바닥이나 모래땅 등 그 어느곳에서나 농작물을 자래울수 있으며 토양이 없는 조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것만큼 해충방지약을 뿌릴 필요도 없다.

교 통 사 고

나이제리아의 카노주에서 13일 련결차와 2대의 뻐스가 련속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7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12일 에도주에서는 뻐스와 화물자동차가 정면충돌하여 8명의 사망자가 났다.

【조선중앙통신】

ㄱ-41030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